

소규모 개신교회를 위한 공간과 예배의 탐구

- 초기교회 유형으로서의 Dura-Europos와 이머징 예배를 중심으로 -*

최영현**

- I. 들어가는 말
- II. 개신교 교회 갱신의 필요성과 예배 공간
- III. 예배 개혁으로서의 이머징 예배
- IV. 기독교 초기교회 예배와 예배 공간의 시사점
- V. 한국의 중·소규모 교회를 위한 공간의 신학
- VI. 나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예배는 공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영국의 한 예배당에 들어가던 일군의 여인들이 아무 것도 없이 비어 있는 한쪽 벽에 예를 갖추 인사를 했다는 관찰은 공간과 인간의 습성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전에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미 지난 17세기에 올리버 크롬웰의 군대에 의해서 파괴된 성모상에 대한 기억이 예전적인 행동을 지속하게 한 것이다.¹⁾ 이렇게 공간에 나타난 신성의 현존은 개인의 의식에 각인이 되어서 예식(liturgy)을 이룬다. 이를 바꿔 말하면 공간의 재구성은 예배의 재구성을 가져온다는 것이고, 예배의 개혁은 공간의 개혁, 혹은 공간을 재배치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예배의 탈바꿈은 인간의 습속이 가지는 항상성으로 인해서, 그리고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3S1A5A8026156)

** 한일장신대학교 신학부 교수

1) Richard Kieckhefer, *Theology in Stone: Church Architecture from Byzantium to Berkele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3.

많은 자본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규모의 문제 때문에 쉽게 바꾸기 어려운 난제이다. 그러나 근래 한국의 개신교회가 보여주는 풍경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semper reformanda*)’는 선언이 현실화되어서 긍정적인 격변으로 이어질 전조를 보이고 있다. 바로 이 공간에 대한 교회의 집착과 결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 개신교는 신도수의 감소와 헌금을 비롯한 외형의 눈에 띄는 축소라는 위기에 봉착했다. 헌금액의 감소는 건축 헌금의 축소로 이어졌는데 역설적으로 대형교회 건축을 향한 비난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²⁾ 그러나 한국개신교회의 하부를 지탱하는 것은 수많은 중·소규모 교회이기 때문에 대형교회만이 개혁의 대상인 것은 아니다.³⁾ 이들의 문제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아직 성장하지 못한 잠재적 대형교회”로 자리매김하며 끊임없이 양적 팽창을 꾀하는 데에 있다. 많은 경우 이 교회들의 예배당이 위치한 상가 혹은 지하라는 빈한해 보이는 공간은 빨리 탈피해야 할 극복의 대상일 뿐이지 더 이상 그 안에서 종교적인 상징이나 특정한 신학, 지역과 밀착한 목회를 배태할 수 있는 긍정의 공간이 아니다. 이들 중·소규모의 교회들은 그 숫자에 걸맞은 건전한 신학적인 돌봄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갱신의 추동력이 자생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⁴⁾

이 연구는 교회의 개혁과 연관하여 소규모 교회를 지지하고 긍정하기 위한 신학적인 작업이 기독교 선교 초기의 예배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음에 착안한다. 예배의 갱신은 하나님의 백성의 집(*domus ecclesiae*)에 대한 원시 교회적인 관점에서의 회귀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데 이를 현대에 투영하면 성장 위주의 목회 철학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예배당 건축 현상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이러한 비판은 종교사회학적이거나 윤리적인 것에 중심을 두지 않고 예배 신학적인 관점에 한정해서 진행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제시하려는 예배학적인 갱신은 소규모 교회를 위한 프로

2) <<크리스천 투데이>> 2013년 2월 24일자 기사, 「1년 사이 헌금 30% 감소... 교회도 ‘불황’ 맞았다」

3) 고영수, 「한국 교회 이미지 회복을 위한 강소형 교회 세우기 Small but Strong Church Build-up」, 『Church Growth』 10월호(2014), 97. 한국 교회의 80-90%는 성인 100명 미만이 출석하는 교회라고 한다. 이들이 차지하는 전체 교인 숫자는 역시 80%가 넘는다. 오규훈도 80%가 100여명 내외라는 보고를 하는데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 보면 대부분의 통계가 유사치를 제시했다. 오규훈, 『153교회』(서울: 포이에마, 2013), 194.

4) 본고에서 중·소형규모의 교회는 숫자로 200-300명 이하, 독립적인 예배당 건물이 없이 상가 등에 위치한 교회로 한정한다.

그램을 모색하는 것인데 이는 일시적으로 차용한 후 흥미가 떨어지면 용도폐기당하고 말 예배 프로그램적인 차원의 접근이 아니다. 예배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공간에 대한 감각은 일차적으로 엘리야데(Mircea Eliade)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성스러움과 속됨에 대한 것인데 본 연구는 이 인간의 근원적인 감각이 어떻게 교권을 위해 봉사하게 되었는가를 되짚어 볼 것이다.⁵⁾ 그 후 이머징교회운동과 그 예배를 소개할 것인데 이 운동이 지향하는 바인 고대의 기독교, 즉 로마의 식민지였던 두라 에우로포스(Dura-Europos) 유적의 가정을 기반으로 한 교회(domus ecclesiae)를 필두로 유추할 수 있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예배를 오늘에 되살리려는 데에 주목할 것이다.

II. 개신교 교회 갱신의 필요성과 예배 공간

“예배당이 전도를 한다.”는 명제가 공공연하게 유통이 되는 현실에서 개신교의 예배 공간이 목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⁶⁾ 개신교의 역사를 통해 설교 중심의 예전과 성상(聖像)금지로 대표되는 담론이 지배적이어서 공간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차단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공간이 갖는 상징성은 때때로 교회의 본질 자체를 흔들기도 한다.

1. 예배를 앞서가는 공간의 신학

개신교회는 텍스트 중심의 신앙을 발전시켜왔기에 시각적인 상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그러나 예배 공간을 하나님의 백성의 집(domus ecclesiae)과 하나님의 집(domus dei)으로 구분해서 보는 패턴이 이미 초기교회에서부터 나타나면서 공간과 예배의 상관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공간에 대한 관심은 경험에 근거한다. 런던의 국회의사당을 개축하며 처칠이 남긴 “우리가 이 건물들을

5) Lindsay Jones, *The Hermeneutics of Sacred Architecture: Experience, Interpretation, Comparison, Volume 2: Hermeneutical Calisthenics: A Morphology of Ritual-Architectural Priorities* (Cambridge: Harvard Press, 2000), 35-39.

6) 성장주의와 결부된 개신교회의 예배 공간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은 다양한 그룹에서 시도하고 있는데 건축가와 신학자들의 진지한 연구 모임인 ‘교회건축문화연구회’를 필두로 학계에서는 성공회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 등이 전공자를 중심으로 꾸준한 학술 활동과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만들지만 이후에는 이것들이 우리를 빚어내게 될 것이다.”라는 말은 건물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극적으로 나타낸다.⁷⁾ 애초에 그 기원에서부터 건축물은 인간의 우주에 대한 감각의 표현이다. “우주의 축(axis mundi)”이나 “우주의 기둥(universalis columna)” 혹은 “세계수(The tree of life)” 등은 모두 장소와 공간에 대한 이질적이고 피안적인 생경함이 주는 거룩함에 관계된 것으로 인류는 종교시설물을 비롯한 건축물에서 이런 감정의 재현을 피하고는 했다.⁸⁾ 특별히 신적인 거룩성을 담지해야만 하는 종교적인 건물의 경우 여러 가지 상징들을 동원해서 신성한 장소의 이미지를 생성하기에 부심했는데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종교로 공식화된 이후 바실리카를 예배의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기실 시장이나 법정과 같은 일상의 현장에 불과했던 건축물에 단을 더욱 높여 계층을 구분하고 성가구들을 설치해 모세의 떨기나무를 재현하려고 했으며 성자들이 영면한 카타콤을 모사해서 옮겨오려고도 했고 귀족들의 무덤을 감싸던 작은 돔을 별도의 세례당으로 발전시켰다.⁹⁾

경험과 연관된 이러한 노력들은 각 기독교 교단이 저마다의 예배를 적절하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배당을 짓도록 만들었다. 입당 순서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서쪽의 입구에서부터 장방형의 긴 신랑(身廊, nave)을 지나 앱스(後陣, apse)에 이르기까지 행렬을 이뤄 걸어갈 수 있게 건물을 지었다. 찬양이 발달되고 강조될수록 높은 천정은 예배의 완성도를 높였다.¹⁰⁾ 잔향을 길게 하기 위해서 중앙집중형 건물을 피하고 때로는 음향을 위한 장치를 부가하는 수고를 마다하지도 않았다.¹¹⁾ 그러나 모든 예배가 언제나 공간을 좌우한 것은 아니었다. 선교 초기부터 공간에 예배가 재단되기도 했는데 제국의 공인 이후 제공된 바실리카도 기존의 건물을 빌린 것이기에 그 형태에 맞추어 예배에 수정을 가했고 가정교회 역시 세례를 위한 공간과 성찬을 위한 공간이 분리되는 식으로 건물에 예배를 맞추는

7) James F. White, *Christian Worship in North America: A Retrospective, 1955-1995*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1997), 211. 수잔 화이트(Susan J. White)는 다른 책에서 상호적인 관계로 공간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기도 한다. Susan J. White, *The Spirit of Worship: The Liturgical Tradition* (Maryknoll: Orbis books, 1999), 91.

8) Mircea Eliade, *The Sacred and the Profane* (Orlando: A Harvest Book, 1987).

9) Douglas R. Hoffman, *Seeking the Sacred in Contemporary Religious Architecture* (Kent: The Kent State University Press, 2010), 3-4.

10) 로버트 E. 웨버, 『예배의 역사와 신학』, 정장복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192-193.

11) ‘비트루비우스의 단지(Vitruvian jar)’라는 항아리를 곳곳에 설치해서 잔향 효과를 배가시키기도 했다. 임석재, 『서양 건축사 3: 하늘과 인간』 (서울: 북하우스, 2006), 78-79.

형식이었다.

이렇게 예배와 공간의 선후관계는 어느 것이든지 서로를 존중하는 형태로 발전해왔다. 문제는 예배나 그 안의 공동체를 고려하지 않은 건축물의 출현에서 시작된다. 기독교의 예배당 건물은 신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회중을 위한 공간이기도 했다.¹²⁾ 예배당은 타종교의 신전처럼 모셔야 할 신을 위한 기념비로 인식되지 않기에 신도들은 밖으로 쫓겨나서 건축물을 감상만하지 않아도 됐다. 오히려 유럽의 교회들이 밖은 완성이 되지 않은 공사 중인 채로 수세기 동안 내부를 사용했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회중이 공간을 사용할 수만 있었다면 외부의 완결은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¹³⁾ 이는 비록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공동체를 위한 공간이라는 기조가 면면히 흘렀음을 의미한다.

교회의 공간은 어느 경우에도 공동체와 그들의 신앙과 조화를 이루며 존재해야 한다. 제임스 화이트(James White)는 교황 바오로 6세가 성 베드로 예배당에서 승리주의(triumphalism)를 비판하는 설교를 들었을 때 극심한 괴리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공간이 공동체와 무관할 수 없고, 공동체의 신앙과 유리되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화이트가 공간이 곧 신앙(space is faith)이라고까지 선언한 것은 공간과 그 상징성이 신적인 존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그들의 신앙이라는 부분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¹⁴⁾

그의 주장대로 건물은 신앙 공동체가 예배하는 데 얼마나 적합한가의 관점에서 평가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현대교회의 컨텍스트에서는 사람이 건물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환대(hospitality)’, 압도하거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게 하는 ‘스케일(scale)’, 음향을 포함한 미적인 것들이 종교적 감화를 돕는 ‘친밀감(intimacy)’이 어느 정도로 사람들을 예배로 이끄는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¹⁵⁾ 결국 교회의 개혁은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그것은 예배의 개혁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그런 변화는 공간의 갱신이 동반되지 않고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수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예배당 건축은 예배 혹은 공동체의 영

12) 킬드의 분류에서 두 번째인 사회적인 힘 혹은 인간의 영향력과 권위가 결부된 사회정치적인 맥락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Kilde, *When Church became Theatre: The Transformation of Evangelical Architecture and Worship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10.

13) 제임스 화이트, 수잔 화이트, 『교회건축과 예배 공간: 신학과 건축의 만남』, 정시춘, 안덕원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26.

14) James F. White, *Christian Worship in North America: A Retrospective, 1955-1995*, 212-213.

15) 제임스 화이트, 수잔 화이트, 『교회건축과 예배 공간: 신학과 건축의 만남』, 27-29.

성과 무관한 상업주의적인 공간의 신학을 대변하는 현장이고, 이를 추종하는 중·소규모의 교회 역시 예배나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는 모순이 배태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2.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가정 교회 및 상가 건물

예배도 공간도 시간이 지나면 변천을 거듭한다. 결코 변할 것 같지 않던 엄숙한 한국의 장로교 예배도 시간이 지나면서 박수와 밴드가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런데 아직까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굳건한 기초가 있다면 예배당 건물 자체에 대한 집착일 것이다. 청교도 정신과 칼빈의 신학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예배당은 ‘솔로몬 성전’과 같은 이미지로 채색이 된다면 한국의 수많은 개신교회의 공간과 예배는 환대성과 스케일, 친밀감 모두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매주 7개가 문을 닫는다는 이 땅의 소규모 교회의 경우 맹목적으로 기성교회의 공간의 신학을 추종하는 것은 자신들의 존재, 혹은 존재의 의미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¹⁶⁾

1) 소규모교회의 탄생

교세의 팽창기를 거치면서 과잉된 목회자 과잉 공급의 문제는 교회 개척을 구조적으로 강요해왔다. 이들이 대개 자리를 잡는 곳은 상가의 후미진 반지하이거나 2층인데 그나마 반지하 보다 채광과 높은 공간이 주는 장경주의(場景主義)적인 이점으로 인해 상가의 위층으로 올라가는 경우를 더욱 자주 목격하게 된다.¹⁷⁾ 문제는 이 공간이 목회자들에게나 교회의 구성원들 모두에게 극복의 대상이지 보듬고 어루만져야 할 종교적인 성현(hierophany)이나 신성이 느껴지는 성화된 공간도, 하나님의 우주를 상징하는 세계의 모형(imago mundi)도 아니라는 점이다.

성장모델에 함몰되어서 아직 대형교회가 되지 못한 고달픈 미생(未生)의 숙명이 강요되었던 다수의 중·소규모 교회들은 채용과 인력 부족으로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이나 어떤 참신한 시도도 할 수 없을뿐더러 목회자들의 생활을 걱정해야 할 정도의 형편에 놓여 있다. 노회별로 개척교회를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개교회주의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소형교회의 경쟁력은 뜨거운 기도와 설교로 대변되는 목회자의 영성에 한정되

16) 오규훈, 『153교회』, 192.

17) 장경주의는 건축물과 높이와 위치의 상관관계에 대한 복잡하고 역사적인 기준에 따른 관념이다.

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을 발견하게 하고 일상에서 발생하는 모순과 씨름 하도록 격려하는 종교의 근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데 중·소규모 교회가 대형교회 못지않게, 혹은 대형교회보다 더욱더 적절하게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를 물어야 한다. 킬드(Jeanne Halgren Kilde)가 지적한 바와 같이 종교건축물이 갖는 사회적 기능, 즉 빅터 터너(Victor Turner)가 강조한 의례과정(ritual process)은 교회 건물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난다.¹⁸⁾ 눈에 보이지 않는 실재를 가시적인 물질과 연결하는 것이 돌과 유리로 만들어진 예배당이고 그 안에서 인간은 때로는 사회를 이루며, 때로는 독립된 개인으로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교회 건물에는 초월적이고 신비한 영역의 힘, 사회적인 힘, 개인적인 영역의 힘으로 분류되는 세 가지 힘의 역학관계가 존재한다.¹⁹⁾

한국의 소규모 혹은 상가교회들을 볼 때 종교성과 힘이라는 관점에서 분석되는 문제점은 첫 번째로 초자연적이고 신성한 영역과 관련된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의 많은 작은 교회들은 자신들의 임대한 상가교회를 거룩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두 번째로는 화이트가 지적하는 것인데 사회적인 환대, 스케일, 친밀감의 관점에서 교회 건물을 대하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교회들은 항상 이 공간에서의 탈피를 시도한다는 점이 문제이다.²⁰⁾ 세 번째로는 다시 킬드의 분석에 기대어 볼 때 발견하게 되는 구원과 면제, 나아가 빅터 터너의 코뮤니타스(communitas)와 같은 것들까지 ‘개인’이 인지하거나 동참하는 것이 바로 교회 건물임을 인식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²¹⁾ 그녀의 분석대로 사회적이든 신성한 영역이든 그것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개인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한국개신교회의 가부장적인 교권 중심주의에서 이 복잡한 역학관계는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피안적인 생경함도, 환대와 친밀감도, 개인이 체험하게 되는 역동적인 역학구조들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발현이 되지 않고 오직 팽창과 욕망만 자극해서 회중과 유리된 교회라면 그것들이 과연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18) Victor Turner, *The Ritual Process: Structure and Anti-Structure* (Ithaca: Cornell Paperbacks), 1977.

19) Jeanne Halgren Kilde, *When Church became Theatre: The Transformation of Evangelical Architecture and Worship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9-10.

20) 제임스 화이트, 수잔 화이트, 『교회건축과 예배 공간: 신학과 건축의 만남』, 26-29.

21) Kilde, *When Church became Theatre: The Transformation of Evangelical Architecture and Worship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11; Victor Turner, *The Ritual Process: Structure and Anti-Structure*, 131-133.

2) 이상적 교회의 규모 탐색

한국의 주류개신교회가 현세적 물질주의에 몰입하고 성장과 힘을 추구한 데 대한 지적은 많다.²²⁾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대안으로 다수의 중·소규모 교회를 위한 신학과 실천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쟁과 경제 원리에서 자유로운 대안적인 교회로 적절한 것은 밀라노 칙령으로 대형화의 길을 걷기 이전에 존재했던 기독교 초기(초대) 교회이다.²³⁾ 가정교회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교회의 모델에 대한 비판이 아주 없지는 않은데 핵가족화된 현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과 더불어 용어 자체에 대한 교정까지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용어라는 지적부터 회집 장소에 대한 관점에서 가옥 교회, 혹은 주택 교회라는 말이 더 적합할지도 모른다는 지적도 있다.²⁴⁾ 그러나 이런 견해들에도 불구하고 가정교회와 같은 소규모의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더 충실할 수 있다는 전제에는 동의한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초기의 교회는 당시의 문화에 따라 가장장적인 기반에서 시작했지만 한 가족 집단의 수장이 성인 남성인 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꾀했다. 사회와 경제, 문화를 아우르는 기존의 틀을 깨는 운동으로서 초기의 교회가 보여줬던 역동성은 오늘의 한국교회가 무게를 두어 숙고해야 할 가치이다.

구체적으로 가정교회 규모의 교회는 친밀함을 유지하고 공동체를 이루기에 적합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유지하기에도 좋다. 나아가 평등의 가치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유지하는 데도 유리하다.²⁵⁾ 이러한 가치들은 교회 건물 자체와는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리적인 환경이 강제하는 힘은 크고 공간이 공동체의 성격을 조형한다는 관점에서 여전히 의미가 있다. 나아가 교회에 대한 반응은 학습이 된다는 점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²⁶⁾ 소규모 교회에서 건전한 예배

22) 최형목, 『한국 기독교와 권력의 길- 그 내부에서 바라보며 대안을 찾는다』 (서울: 로크미디어, 2009), 22-23; 오규훈, 같은 책, pp. 19-25. 이 외에도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료들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23) 무교회주의 모델 등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정교회로의 회귀가 그나마 실현 가능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Harold W. Turner, *From Temple to Meeting House: The Phenomenology and Theology of Places of Worship*, Amsterdam: Mouton Publishers, 1979, p. 325; 오규훈, 『153교회』, 38.

24) 박영호, 「가정교회는 교회인가?- 예배 공간과 공동체의 정체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4 (2014), 8ff.

25) 오규훈, 『153교회』, 51-63; 홍인규, 「바울과 가정교회」, 『신약연구』2 (2003), 243-248.

26) Richard Kieckhefer, *Theology in stone: Church Architecture from Byzantium to Berkeley*, 9.

를 경험하거나 공동체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공유할 것이고 분명히 후대에까지 전수가 되어 건강한 교회를 실현하는 데 기반이 될 것이다.

Ⅲ. 예배 개혁으로서의 이머징 예배

교회의 크기에 대한 예배학적 관점에서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초기(초대) 교회를 회복하려는 이머징교회운동(Emerging church movement)에서 찾을 수 있다.²⁷⁾ 교회 건물은 신앙과 공동체의 유기체적 성장과 변화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유기체적이고, 예배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상징과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금자리로 기능해야 한다. 이런 공간의 신학에 봉사할 수 있는 예배가 이 운동에서 기획되고 있다.

1. 상업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한 반성으로서의 이머징운동

많은 한국개신교회가 모범으로 삼는 북미의 교회들은 근대 이후 유럽의 선조들이 자본을 축적한 데에 힘입어 개인주의화와 상업주의화가 신대륙에서도 가속화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산업화와 맞물려서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모더니즘의 조류에 휩쓸리게 된 교회는 계몽주의가 낳은 상업주의(consumerism)와 개인주의(individualism)를 수용했다.²⁸⁾ 역사를 진보의 관점으로 보는 시각과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과도한 긍정, 그리고 무분별하게 확산되어버린 낙관주의는 양차대전 등을 통해서 근대성이 무너져내리는 것을 목격하고서도 여전히 서구사회 곳곳을 종횡하고 있다. 아직도 북미의 많은 교회들은 개인주의와 도취적인 자아 중심적이고 심리적인 신앙, 그

27) 이머징교회운동의 기조와 신학, 효용성 등 본고의 관심 외의 부분에 관해서는 아래의 논문들을 참조하라. 최영현, 「다문화 상황에서 이머징교회운동」, 『신학논단』, 76 (2014); 유재원, 「이머징 교회 운동의 설교 연구」, 『장신논단』 44 (2012); 유재원, 「한국형 이머징 예배의 가능성 연구」, 『장신논단』 45 (2013).

28) John Boli, "The Economic Absorption of the Sacred," *Rethinking Materialism: Perspectives on the Spiritual Dimension of Economic Behavior*, ed. Robert Wuthnow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 Co., 1995), 96-97; 리처드 미들턴, 브라이언 왈시,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 세계관』, 김기현, 신광현 옮김 (서울: 살림, 2007), 33-38, 92-98; 에디 깁스, 라이언 볼저, 『이머징 교회』, 김도훈 옮김 (서울: 쿰란출판사, 2008), 106-107.

리고 이를 지속하게 하는 소비주의에 경도되어서 공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지나친 침묵을 지키고 있다.²⁹⁾ 이것이 극대화된 대형교회(megachurch)현상은 북미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며 성장을 위한 마케팅 목회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³⁰⁾

근래 들어 이에 대한 반성이 역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그 구체화된 운동이 바로 이머징교회운동이다. 한 세대를 풍미했던 구도자예배가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교회 운동, 혹은 예배 형태였다면 이제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도 새로운 운동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났다.³¹⁾ 새로운 세대의 문화적 감수성과 종교적 동향은 이전 세대와 달라서 부모 세대가 주도한 소비주의 신앙과 포터블 신앙은 이들에게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다.³²⁾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대변되는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종교의 의미를 찾는 새로운 세대에게 이머징교회운동의 지도자들은 소비주의적 기독교를 탈피해 초기의 기독교 형태와 그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고 이를 위한 신학, 예배, 설교 등을 제시했다.

이머징교회운동이 한국의 많은 중·소규모 교회에 시사하는 또 다른 미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배의 공간과 관련된 것이다. 이 운동의 주요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댄 김볼(Dan Kimball)은 노골적으로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초기교회를 모델로 삼는다. 이 초기교회는 가정에서 단순하게 모이는 데 힘을 썼다. 함께 식사하고 찬송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에 참여했다. 이들은 성만찬을 나누는 동시에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친교의 공동체였다.³³⁾ 그가 주목하는 대로 이 교회는 성장 이후 바실리카 건축 양식의 교회에 모이면서 변화를 겪게 된다.

따라서 바실리카 이전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머징교회운동은 예배에 있어

29) 에디 깁스, 라이언 볼저, 『이머징 교회』, 28-30; 짐 벨처, 『깊이 있는 교회』, 전의우 옮김 (서울: 포이에마, 2011), 36-38; 한국에서도 선교사를 통해서 상업주의와 물질만능주의와 같은 기초들이 일찍부터 유입이 되었다. Dae Young Ryu, "Understanding Early American Missionaries in Korea (1884-1910): Capitalist Middle Class Values and the Weber Thesis," *Archives de Sciences Sociales des Religions* 113, 2001.

30) 옥성호,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8).

31) 예배와 소비주의는 여러모로 연관이 되어 있다. James L. Empereur and Christopher G. Kiesling, *The Liturgy That Does Justice*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 2006), 233; 댄 김볼, 『시대를 리드하는 교회: 새로운 세대를 위한 전통적 기독교』, 윤인숙 옮김 (서울: 이레서원, 2007), 35-36; 에디 깁스, 라이언 볼저, 『이머징 교회』, 44-52.

32) 짐 벨처, 『깊이 있는 교회』, 52-60.

33) 신약성경이 이머징교회 예배로 가득 차 있다고까지 한다. 댄 김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고귀한 예배』, 주승중 옮김 (서울: 이레서원, 2007), 35.

서 구경하는 관객형 예배가 아니라 유기적인 계획 아래 성스러운 공간을 창안하는 기획이 가미된 예배를 제안한다. 그리고 예배당의 분위기를 가정집처럼 꾸미는 동시에 종교적인 상징들을 배열한다. 이 예배는 한 두 사람의 리더가 이끌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며 현대적인 감각 때문에 교회의 역사를 망각하는 우려를 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지속한다.

2. 공간과 상징에 대한 이머징 예배의 관심

이머징교회운동은 스스로 예수를 따라야 하고, 세속의 영역을 변화시키며, 고도의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⁴⁾ 이를 구현하기 위해 다시 여러 가지 실천의 강령들을 제시하지만 그들의 구호들을 본교의 관심에 맞게 예배와 공간을 중심으로 재구성해서 분석하면 공동체 중심, 가정 지향, 유기적 구조, 생동감 있는 예배 등을 갖춘 교회로 요약할 수 있다.

1) 공동체 중심주의: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

김볼은 노골적으로 기독교 초기의 “예전(liturgy), 고대의 규율, 기독교의 계절, 유대적인 뿌리 회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과거의 예배와 교회 형태로 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한다.³⁵⁾ 그 시작은 교회가 제도화되기 이전의 교회론을 회복하는 것이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지역의 공동체이기에 건물보다 성도들이 더 중요한 요소이다.³⁶⁾ 초기교회에는 목회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라는 단위로 교회를 인식했고, 이머징교회는 현장에서 작은 교회(mini-church)라는 단위로 적용한다.³⁷⁾

이 공동체 중심적인 자세는 신앙을 사유화하지 않고 공적인 영역에 관심을 갖게 하며 이를 통해서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을 이룬다. 아울러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예술적인 표현의 요소들도 공동체가 스스로를 성찰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기여를 한다.³⁸⁾

34) 에디 깁스, 라이언 볼저, 『이머징 교회』, 71. 이 운동을 소개하고 있는 저서들은 특별히 예배와 교회론에 관해서 유사한 관점을 제시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35) 댄 김벌, 댄 김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고귀한 예배』, 132, 242.

36) 댄 김벌, 『그들이 꿈꾸는 교회』, 차명호 옮김 (서울: 미션월드, 2008), 86-87, 217, 224. 에디 깁스 같은 지도자는 건물과 프로페셔널리즘이 왜곡된 영적 구조의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에디 깁스, 라이언 볼저, 『이머징 교회』, 163.

37) 댄 김벌, 『그들이 꿈꾸는 교회』, 107-108.

2) 가정적 교회: 극장식 교회의 대안 공간 마련

초기교회를 상징하는 교회 모델인 가정교회는 그 모임의 성격이나 형태에 있어서 모두 가정 중심적이다. 여기에서 가족적인 공간의 배치가 핵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족을 혈연이 아닌 공동체로 확대한 것에 착안해서 제도적인 틀 이면에서 작동하는 가족적인 헌신을 목적으로 한다.³⁹⁾ 이 운동의 지도자들은 교회의 역사에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1300년 이후이고 강화된 권위로 인해 공간의 구분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제도적인 속성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으로 공간을 바꾸기 시작했다. 극장식, 혹은 관객형(septator type) 예배에서 탈피해서 앉는 자리 자체를 가정과 같이 무정형, 무지향적으로 배치한다.⁴⁰⁾

보다 구체적으로 신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는 예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심미적이고 환경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영적인 깊이를 상징하는 어둠을 허용하며(조명), 예배 인도자의 위치는 축소하고, 반대로 십자가와 같은 신앙의 중심 상징은 강조한다. 촛불을 사용하는데 이는 유행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빛을 상징하는 것이다. 참여 인원이 500명이 넘어가는 경우이라도 거실과 같은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며 그것이 가능하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신약시대의 관행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또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 실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식사를 한다는 점으로, 신약의 환대와 수용의 상징을 예전적인 환경에서 재현하며 영과 육의 이원론을 극복한다는 의미도 내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⁴¹⁾

3) 유기적 교회: 가부장적 권위 구조의 반성

가정 중심을 표방할 때 고대로부터 가부장적인 권위가 바로 가정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났다는 점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는 없다. 신약성경에서부터 가부장적인

38) 에디 깁스, 라이언 볼저, 『이머징 교회』, 213-214, 365; 댄 킴볼, 『시대를 리드하는 교회: 새로운 세대를 위한 전통적 기독교』, 138-139.

39) 댄 킴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고귀한 예배』, 251-264; 에디 깁스, 라이언 볼저, 『이머징 교회』, 158-161.

40) 댄 킴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고귀한 예배』, 108-109; 댄 킴벌, 『그들이 꿈꾸는 교회』, 107-108, 댄 킴볼, 『시대를 리드하는 교회: 새로운 세대를 위한 전통적 기독교』, 298.

41) 댄 킴볼, 『시대를 리드하는 교회: 새로운 세대를 위한 전통적 기독교』, 160-170; 댄 킴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고귀한 예배』, 112-113, 115-118.

성격에 대한 경고가 드러나는데 이머징교회운동과 예배는 일차적으로 그 지향점을 설교자와 같은 교역자(찬양대 포함)에서 내리고 십자가와 같은 상징물이 표상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방법으로 가부장적인 권위 구조를 탈피하려고 한다.⁴²⁾ 리더 중심에서 수평적인 구조를 갖게 된 교회는 의사결정 방식을 택할 때 위원회나 기관이 의사결정을 하는 관료주의가 아닌 친밀한 관계를 거치게 되고 결국 선교를 위해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⁴³⁾ 유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숫자가 40명이 넘지 않는 소그룹 중심으로 모임을 갖고 이들은 만인제사장직을 강하게 고수하며 전 세계의 다른 모임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다.⁴⁴⁾

이러한 유기적인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 필수적인 가치는 포용이다. 모더니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배척하고 차별하게 하기 쉽지만 이머징교회운동은 그렇지 않다.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남성과 여성의 균형이다. 김볼이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인 가부장적인 교회의 이미지를 탈피한 남녀의 균형은 이머징교회의 핵심 가치와 직결된다.⁴⁵⁾

4) 생동하는 예배: 공감각적 확장

내부적으로 차별과 억압이 없는 구조는 생동할 수밖에 없다. 이 운동이 주장하는 ‘빈티지 예수’에서 빈티지(vintage)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초기교회로 돌아가자는 상징적인 구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는 새로운 세대에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생생한 모습을 전하려는 의도를 갖는다.⁴⁶⁾

이들을 위해 기획되는 예배는 생명력이 있는 예배를 목적으로 기쁨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으로 문자시대의 엘리트주의가 모더니즘과 함께 등장한 것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 활자와 이성 중심의 문화가 시각 문화로 전환되어서 참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며, 대중과 간극이 있다는 말은 교회가 성육화(incarnation)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에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⁷⁾ 예배의 초

42) 댄 김벌, 『그들이 꿈꾸는 교회』, 107.

43) 댄 김벌, 『그들이 꿈꾸는 교회』, 110, 113-14; 댄 김볼, 『시대를 리드하는 교회: 새로운 세대를 위한 전통적 기독교』, 272-274. 벨처는 공홀의 리더십이 살아있는 모임이라고 하면서 ‘유연한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짐 벨처, 『깊이 있는 교회』, 233-234.

44) 에디 깁스, 라이언 볼저, 『이머징 교회』, 181, 318.

45) 에디 깁스, 라이언 볼저, 『이머징 교회』, 193-194; 댄 김벌, 『그들이 꿈꾸는 교회』, 134-140.

46) 댄 김벌, 『그들이 꿈꾸는 교회』, 71-74.

47) 댄 김벌, 『그들이 꿈꾸는 교회』, 112; 에디 깁스, 라이언 볼저, 『이머징 교회』, 113-115.

점이 설교자나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전달이 되는 대상인 예수이기에 더욱 미적인 감각을 살려서 표현하려는 노력을 한다고 볼 수도 있다.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통해 예배에 몰입하게 하고 풍부한 감각을 체험하도록 한다.⁴⁸⁾

이 예배에도 형식이 있는데 그것은 초기교회의 것을 계승하려는 데에 기반을 둔다. 축소된 예식들을 회복하려고 하며 성찬과 촛불, 향 등도 수용의 대상이다. 회중에게 환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나누고, 예배의 각 순서에 있어서 고대의 것과 현대적인 변용이 조화를 꾀한다. 성경을 강조해서 렉티오 디비나(lectio divina)를 활용하며 예배 중 성경을 크게 읽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육화하는 전통을 되살리는 것도 독특한 점이다.⁴⁹⁾

결국 이머징교회운동과 그 예배는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서 사회 주변으로 쫓겨나서 초라하게 종교적인 기능만 담당하도록 축소되어버린 교회의 역할을 회복하도록 재창조하는 의미를 갖는다.⁵⁰⁾

IV. 기독교 초기교회 예배와 예배 공간의 시사점

이머징교회운동이 돌아가야 할 이상적인 모범으로 삼았던 초기교회의 원형은 가정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가정교회에 대한 관심은 교회의 개혁이나 소그룹운동과 맞물려서 고조되었는데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관건이다.

1. 초기 가정교회의 성격과 의미

교회의 선교 초기에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감과 아직 규모가 있는 조직을 갖추지 못한 조건 등은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사도행전(2:46, 5:42, 12:12, 20:20)과 같은 본문들은 ‘오이코스(Oikos)’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식사를 나누는 공동생활과 종교의식을 행했다고 한

48) 댄 킴벌, 『그들이 꿈꾸는 교회』, 106; 에디 깁스, 라이언 볼저, 『이머징 교회』, 118-120.

49) 렉티오 디비나는 ‘거룩한 독서’를 의미하는데 기도와 성경 읽기가 혼합된 방법이다. 에디 깁스, 라이언 볼저, 『이머징 교회』, 126-127, 194-199, 373-374; 댄 킴벌, 『시대를 리드하는 교회: 새로운 세대를 위한 전통적 기독교』, 196-198; 댄 킴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고귀한 예배』, 122-124.

50) 에디 깁스, 라이언 볼저, 『이머징 교회』, 144.

다. 이때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와 전체 교회가 어떤 식으로 모였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기존의 다수 지지를 받는 의견은 형태적으로는 두 형태의 교회가 공존했다는 것이고, 시기와 관련해서는 Oikos Ecclesiae(가정집 교회, 50-150년), Domus Ecclesiae(교회의 집, 150-250년), Aula Ecclesiae(교회홀, 250-313년)의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이 된다는 것이다.⁵¹⁾ 이들 구분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사용한 건물은 개인주택인 도무스(domus)와 아파트인 인술라(insula), 빌라(villa) 등인데 본서의 관심은 이런 건축적인 특징 자체에 있다기보다 이들 공간이 공동체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어떻게 신앙 혹은 실천과 영향을 주고받았는가에 있기에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성경에 나타난 1세기를 전후한 기독교인들의 형편을 들여다보면 이미 다수의 사람들이 누군가의 집 혹은 특정한 집과 같은 기능을 했던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분명하다.⁵²⁾ 이 말은 유력한 사람이 자신의 사유재산을 내어놓았던 것을 전제로 하기에 그 성격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다른 만날 장소가 없어서가 아니라 식사를 위한 음식을 마련하기에 용이하고, 눈에 띄지 않는 은밀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집에서 모이기를 원했다.⁵³⁾ 그런데 가정교회의 위기는 외부의 시선에서만 오지 않았다. 고대사회의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한계에 그대로 노출된 것이 신약에 나타난 가정교회였다. 이러한 공고한 권력의 구조에서 신분의 고하에 관련 없이 심지어 종과 주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예배와 같은 예전행위가 계층과 성별까지도 통합하는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음을 의미한다. 즉, 당시의 가정이 가지는 공간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구조적으로 억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나 그것을 극복한 선례가 있고 이것이 오늘의 교회에 필요한 예배와 신학을 구축하는 데에 유용하다는 말이다.

바울은 이런 사회, 문화적인 정황 가운데서 기독교적인 모범을 제시하고 그것이 강화되는 예배와 실천을 강조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예

51) Richard Krautheimer, *Early Christian and Byzantine Architecture*, 4th ed. (Baltimore: Penguin Books, 1986), 23-37; 정용한, 「교회 건축을 위한 로마 가옥 연구」, 『신학논단』 74 (2013).

52) Bradley Blue, "Acts and the House Church," *The Book of Acts in Its Graeco-Roman Setting*, eds., David W. J. Gill and Conrad Gempf (Grand Rapids: Eerdmans, 1994), 120.

53) Bradley Blue, "Acts and the House Church," 121. 연못이 있는 안뜰을 예전의 공간으로 활용했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제임스 화이트는 반대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이런 노출에 대한 위험 때문이었다. 남호, 『초대 기독교 예배』 (서울: 도서출판 KMC, 2008), 319.

배라는 형식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바울이 교회를 언급했을 때는 세 가지 경우이다. “아굴라와 브리사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고전 16:19), “자매 압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 된 아킵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몬 2), “눔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골 4:15). 이 세 교회를 언급할 때 ‘에클레시아(교회, ecclesia)’를 오이코스(집)와 함께 사용한다. 여기에서 오이코스는 노예까지 포함하는 상당히 큰 사회적인 집단을 일컫는 말인데 오늘의 가정이 주는 소박한 의미와는 다르게 폭력적인 억압이 일상화된 공간이었다. 가장의 위치는 절대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서 행사하는 권력도 작지 않았다. 바울은 그들에게 평등한 구조가 기독교의 핵심임을 가르치려했는데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유독 가부장적인 권위가 행사된 것으로 보이는 고린도교회에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교회가 사사로운 공간이 아님을 강조했다(고전 1:2; 고후 1:1).⁵⁴⁾ 특별히 공동식사에서 먼저 도착한 귀족들이 일과 때문에 늦게 온 낮은 계층의 교인들을 기다리지 않고 식사를 먼저 했을 때 수평적인 공동체의 이상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더욱 가혹했다. 고린도전서 11:22에서 바울은 그들의 무례한 행동을 꾸짖으며 그들의 집(오이코스)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교회에 걸맞은 행동을 하라고 한다. 교회에서 사적인 만찬의 반대말은 공적인 만찬이 아닌 ‘주의 만찬’으로 치환되었다(고전 11:20).⁵⁵⁾

두 번째로 바울은 참된 제자도를 알리는 것을 통해서 공간에 내포된 구습을 타파하려고 시도했다. 복음서에서 예수의 사역과 가르침은 가부장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을 때 지상의 아버지들은 상대화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함께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이들은 기존의 신분에 관계없이 형제이고 자매라고 칭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은 육적인 혈연관계에 고착된 생각을 끊어버렸다. 예수의 제자를 자처한 바울은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과 각 가정 중심의 교회에 여성의 이름을 넣는 수고를 통해서 권위에 기대어 있는 가부장들의 권력을 분산시키려고 했다. 아울러 자신을 후원해주는 사람으로 남자들을 배제하고 뵈뵈라는 한 여성의 이름만을 알린 것(롬 16:1)은 여성의 지위를 확인하는 행위를 통해서 평등한 제자도를 구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⁵⁶⁾

54) 박영호, 「가정교회는 교회인가?- 예배 공간과 공동체의 정체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22.

55) 박영호, 「가정교회는 교회인가?- 예배 공간과 공동체의 정체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26; Blue, “Acts and the House Church,” 132-133.

세 번째로 문화적인 관점에서도 기존의 가정구조를 탈피하려고 했다. 예수의 가르침 중에서 함께 식탁을 나누는 식탁 공동체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에 대한 극적인 상징이었다. 복음서에서 여인의 역할과 믿음에 대한 많은 칭찬은 차치하고라도 예수가 남성이 주인인 집에서 열린 만찬에 한 여인이 나타난 것을 긍정적인 것은 문화라는 관습에 스민 또 다른 가부장적 권위를 해체시키려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 주인이 당시의 관습과 집주인의 권위를 앞세우려 하자 예수는 이를 즉시 교정한다.⁵⁷⁾ 이런 문화에 대한 가르침은 바울에 의해서 주의 만찬이라는 종교적인 제의로까지 즉각 확대되었다.

이렇게 공동체를 응집시키기 위한 제자 그룹의 노력은 복음서의 진술과 서신서의 기록에 하나님의 아들, 유업을 이을 자인 성도들, 형제 자매와 같은 유사 가족(fictive family) 개념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개진되었다. 그리스도가 구성원간의 관계에서 기초 혹은 연결고리로 제시되었고 그 누구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돌보려는 배려가 있었다.⁵⁸⁾

2. 최초로 발굴된 소규모 교회인 두라-에우로포스(Dura-Europos)

1) 주거 공간의 변용

가정을 기반으로 한 초기교회는 오래가지 않는 재료로 짓기 마련이었고 기념비적인 건축물도 아니었기에 항구적으로 보존되기 어려웠다. 현재 발굴된 최초의 가정교회는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두라, 혹은 에우로포스라고 불리던 군사 요새도시에서 발견이 되었다. 1920년대부터 시작된 발굴로 정기적인 예배를 위한 전용의 교회 공간이 드러났는데 231년 혹은 232년에 세워진 건물로 추정되는 이유적인 가정집을 개조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중정(中庭)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이 주택은 두 개의 방을 하나로 터서 집회실로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다. 5미터 폭에 13미터 길이의 이 방에는 50명에서 60명이 수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방에는 세례반이 있어서 세례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 세례실과 집회실 사이에는 다른 방 하나가 있는데 이 방은 예비 신자들에게 교육을 하는 방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이 방은 세례를 기다리

56) Blue, "Acts and the House Church," 14, 25.

57) Blue, "Acts and the House Church," 25-26.

58) 이성찬, 「신약성서에 나타난 가정」, 『성서마당』80 (2006, 61-63, 69-70).

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으로도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 초기 교회는 집회와 세례를 위한 공간, 교육을 위한 공간이 분리된 전형적으로 예배를 고려한 공간 배치를 보여준다.⁵⁹⁾

2) 예술작품과 결합한 공간

두라-에우로포스의 경우에는 세례실을 중심으로 벽화가 공간에 의미를 더했다. 세례반을 덮고 있는 캐노피 바로 아래에는 어깨에 양을 메고 있는 목자가 있고 그 뒤로 양떼가 따르는 그림이 있다. 이 그림은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바로 기독교적인 이미지라고 이해하게 되지만 사실은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오래된 전통에 근거한 것으로 길을 잃은 양이 목자에 의해서 구해지는 일반적인 구원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한 목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예수에 의해 이 일반적인 이미지는 기독교의 독특한 구원 사상을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었다.

세례실 남쪽 벽에는 예수의 기적에 관한 단편적인 장면 두 가지가 그려져 있는데 중풍 병자를 치유하는 마태복음 9장의 이미지와 물 위를 걷는 베드로와 예수의 모습이다(마태복음 14장). 그 아래에는 큰 석관에 다가가는 두 여인의 모습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마태복음 28장)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선한 목자의 그림과 달리 이 기적을 묘사한 그림들은 예수의 삶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독교에 투신하기로 다짐한 신자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그 방에 갔을 때 그 벽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알게 되는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다.⁶⁰⁾

벽화는 기독교 유적에서만 발견되지 않았다. 유적에서 유대교의 회당이 같이 발굴이 되었는데 그 안에도 동일한 유형의 벽화들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율법에서 신의 형상을 묘사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벽화를 유대교의 회당에 그리는 것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증거물들은 유대교도 새로운 개종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치장을 했을 것으로 추측하게 만든다.⁶¹⁾ 아울러 이 그림들을 통해 기독교도들 역시 당대의 타종교인들처럼 자신들의 공간을 예술작품으로 치장하기를 원했음을 알 수 있다.

59) Krautheimer, *Early Christian and Byzantine Architecture*, 27-28; 임석재, 『서양 건축사 2: 기독교와 인간』 (서울: 북하우스, 2003), 138-139.

60) 존 로텐, 『초기 그리스도교와 비잔틴 미술』, 임산 옮김 (서울: 한길아트, 2003), 21.

61) Joseph Gutmann, *The Dura-Europos Synagogue: A Re-evaluation(1932-1972)* (Missoula: SBL/AAR, 1973); 박정세, 「초기 기독교 성화의 기원과 토착화-제정로마시대를 중심으로」, 『신학논단』45 (2006), 267-268.

3) 음성 전달을 위한 공간

예배 공간의 변화는 음향과 관련해서 예배 내용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음향 고고학자들은 두라-에우로포스 유적과 확장된 예배 공간인 바실리카 안의 음향 상태(room acoustics)를 현대의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해서 건축물과 그 안에서 진행된 예배의 특징들을 규명했다.⁶²⁾ 전문적인 측정 기준과 장비(ISO 3382-1:2009에 따른 CATT-Acoustics 소프트웨어(8.0K))로 두라의 유적과 후대에 기독교가 공인된 후 건축된 바실리카의 신랑(nave)를 비교해서 조사한 결과는 가정의 예배당 공간이 설교와 같은 음성 전달에 훨씬 유리했다는 것이었다. 두라의 예배 공간의 음향은 바실리카에 비해 잔향이 적고 음성의 선명함에 대한 지표가 높아 전체적으로 연설 내용이 잘 전달되는 것이었다.⁶³⁾

위의 연구 결과는 밀라노 칙령 이후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과정에서 예배가 장엄하게 되고 로마의 공식적인 의식들을 차용하는 동시에 많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했던 변천 과정과 필연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예배는 이전처럼 100명 안팎의 소규모 공동체를 대상으로 했던 설교와 교육을 통한 친교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었다. 공간이 커져서 노래의 효과가 증대되었고, 역으로 울림을 이용해서 찬양과 운율이 있는 독서로 성경 봉독과 인도가 바뀌어 나갔다. 음악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나간 것이다. 이와 함께 수직적인 교권이 확립됨에 따라 예배 참석자들이 신랑(nave)에 위치해 건물 끝의 앱스(apse)를 바라보는 수동적인 예배로 바뀌게 되었고, 음성의 전달은 전적으로 교역자들의 처분에 피동적으로 따르게 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V. 한국의 중·소규모 교회를 위한 공간의 신학

62) 음향 고고학(acoustics archaeology)으로 불리는 연구의 범주는 반향시간(reverberation time: T30), 감소시간(early decay time: EDT), 음성 명료도(definition: D50), 음색의 선명도(clarity: C80), 연설 전달 정도(Speech Transmission Index: STI) 등에 관한 것이다. Rafael Suarez, Juan J. Sendra, Alicia Alonso, "Acoustics, Liturgy and Architecture in the Early Christian Church. From the domus ecclesiae to the basilica," *Acta Acustica united with Acustica* 99 (2013).

63) Rafael Suarez, Juan J. Sendra, Alicia Alonso, "Acoustics, Liturgy and Architecture in the Early Christian Church. From the domus ecclesiae to the basilica," 293-295.

화이트가 교회 건물들이 환대성,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틈을 허락하는 스케일, 친밀감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분명히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건축물에 대한 조언이었다.⁶⁴⁾ 이런 예배 공간의 특질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와 예배라는 요소 사이에서 적절한 상호 작용이 일어날 때 극대화될 것인데 이머징 예배는 사람들을 조직하고 머물게 하는 교회의 기능에 충실하기에 이를 통해서 오늘 한국의 상가교회를 포함한 중·소규모 교회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여하기에 적합하다.

1. 환대의 공간

인간은 종교적(homo religious)이기에 질서가 잡힌 공간으로 세계의 축소판, 세계 모형(imago mundi)을 추구한다. 성스러운 것은 인간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변형을 약속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때문이다.⁶⁵⁾ 건축과 관련해서 imago mundi(세계 모형)는 두 가지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 가지는 체계적인 계획이다. 인간이 건축을 할 때 중심으로부터 체계적으로 지어나가는 것은 이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영이 된다. 도시를 계획할 때나 집을 지을 때 기초와 중심부터 계획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효율성을 위해서 필연적인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 본성부터 혼돈을 피하려는 무의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의 발현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건축물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를 모방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를 표방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필연적으로 권력과 연관이 된다. 신성화된 자리는 함부로 범접할 수 없고 위계에 따라 허락된 사람만 접근하게 된다. 이것을 깨려는 세력은 혼돈으로 묘사되었고 고대세계의 용들로 대변된다. 질서와 경건한 상태를 깨려는 세력은 항상 불안하고 기피의 대상이다.

예배의 공간으로서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domus dei)을 극한으로 추구하면 그 안에 질서와 권위와 체계는 있겠지만 서로를 바라보게 하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환대는 부차적인 것이 된다.⁶⁶⁾ 이머징교회운동이 공동체를 강조했다 때 참고한 신약의 교회들은 서로를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면서도 차별한 질서가 유지되는 교회였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의 한국교회를 볼 때 상가에 위치한 소규모교

64) 제임스 화이트, 수잔 화이트, 『교회건축과 예배 공간: 신학과 건축의 만남』, 27-29.

65) Lindsay Jones, *The Hermeneutics of Sacred Architecture*, 34-36.

66) Richard Taylor, *How to Read a Church: A Guide to Symbols and Images in Churches and Cathedrals* (Mahwah: HiddenSpring, 2005), 5.

회들이라면 제도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큰 교회 건물이 주는 위압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물론 이런 구조가 주는 편안함은 때때로 일상과의 단절에서 오는 종교적인 체험마저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머징교회가 과시적이거나 인간을 배제하는 공간을 배격했던 것처럼, 또 두라-에우로포스 유적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일상과 단절된 특정한 공간이 주는 기독교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세례실과 집회의 공간, 교육의 공간을 분리한 것처럼 예배의 기능에 충실하게 공간을 재배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사안이다. 특별히 개신교의 교단에 따라서 세례를 물을 뿌리는 산수례와 침례 사이에 구분을 두는 경향이 강한데 초기교회의 전통에서 이들에 대한 차이를 두지 않았음에 유의해야 하며 세례의 물이 주는 풍부한 이미지와 상징이 신자들의 체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⁶⁷⁾

2. 참여의 공간

교회의 공간은 목회자의 권위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과도 관련이 깊다. 엘리야 데가 말하듯 코스모스의 세계는 이미 신이 확인해준 공간이다. 소규모 교회, 상가교회나 가정교회는 그 자체로 거룩성에 대한 확립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회자의 권위를 그 안에 스스로 세울 방법이 없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필연적으로 상가 혹은 가정교회는 혼돈 상태로 파악하게 만들기가 쉽고, 자연스럽게 목회자의 지도력 혹은 목회자의 권위에 대한 의구심이 대두될 위험성은 커지게 된다. 신성한 곳은 신에 의한 천부적인 권력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상가교회에 대한 세속의 박한 평가의 종교적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까운 예배 공간이 회중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끄는 점은 장점이다. 여기에서 목회자가 폭압적인 종교권력을 설교 등을 통해 행사하지 않고 정당한 권위가 세워지는 예배를 기획할 수 있다면 초기교회의 이상을 따르는 것이 될 것이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실내에서 모인다는 특징 때문에 참여가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⁶⁸⁾ 게다가 종교적인 영역을 주재(主宰)하는 교역자의 역할이 커지면 커질수록 회중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작아지게 된다. 이머징교회와 초

67) James F. White, *Documents of Christian Worship: Descriptive and Interpretive Source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147.

68) <<매일경제>> 2013년 11월 14일자 기사, 「편안한 절 vs 어려운 교회」

기의 교회들은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피동적인 인간도 저마다의 역할을 찾아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가 바로 하나님이 지향하는 나라임을 분명히 한다. 환대의 본질은 서로 만나게 하고 서로를 알게 하며 상호간에 제 몫을 다하도록 격려하는 참여에서 발현된다. 화이트는 지금도 공간이 조정되면 초기교회의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⁶⁹⁾

3. 친밀한 공간

상가교회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소규모교회는 기존의 소비주의에 경도된 관점에서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치부되기 마련이다. 그 내면에서는 마케팅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속(俗)의 극치인 상업주의를 기피해야만 하는 성스러운 공간인 교회이기에 존재와 실존의 부조리는 언제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번듯한 공간을 갖도록 조급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상은 멀고 현실은 가혹해서 자리 잡은 곳이 그 자체로 주거지 밀착형 상가 건물이거나 가정집이기에 그곳을 세계의 중심(axis mundi)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초기교회는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데 신경을 집중해서 결국 공간이 예배에 봉사하게 만들었다. 두라의 유적과 이머징 교회의 예배당은 생활공간이 용도에 맞게 개조되고 각종 예술작품으로 특별한 공간이 되도록 창조적인 변용을 시도한 전범(典範)이다. 이렇게 공간이 예배에 복속되는 과정을 통해 중·소규모 교회는 공동체가 결속이 되도록 신앙생활과 예배가 봉사하게 만드는 구조, 혹은 공간에 예배를 구겨넣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맞추어서 공간을 구성하는 신학을 구현할 때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어렵듯이나마 깨닫게 될 것이다.⁷⁰⁾

상가교회마저 획일화된 장방형의 구조와 장의자로 대변되는 딱딱한 분위기를 고수할 때 친밀한 공간이 주는 참여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설교자나 교회의 지도자에게 집중되는 지금의 일반적인 예배 형식도 참여가 아닌 감상을 부추긴다. 음향이나 음악도 그 자체가 구경하는 대상이 될 것이 아니라 이머징예배에서처럼 참여와 경배로 유도되는 유기적인 것으로 ‘기획’되어야 한다.⁷¹⁾

69) 제임스 F. 화이트, 『기독교 예배학 입문』, 정장복, 조기연 옮김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0), 109.

70) 이때 예술은 단순한 종교 예술이 아니라 “예배” 예술이어야 하고 숭고함이 드러나야 한다. 제임스 화이트, 수잔 화이트, 『기독교 예배학 입문』, 239-240.

4. 변혁의 공간

혹자는 이머징교회나 초기교회의 예술작품 사용 등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림이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은 만일 인간의 의도로 타락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이미지의 사용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⁷²⁾ 그렇게 결국에는 현실을 변혁하는 공간의 의미를 살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대형교회가 예배 공간이 부족해서 별도의 방에 사람들을 앉혀놓고 티브이 스크린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도 본질상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인간의 의도가 적극적으로 개입되는 우상숭배와 구분이 모호해지게 된다. 그림은 그것을 목상할 때에만 우상숭배가 되지 않는다.⁷³⁾ 이것이 적절한 교육으로 상징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이고 초기교회와 이머징교회운동이 예술을 긍정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아울러 가정집에 그려진 벽화는 일상과 신앙을 연결하는 데에 매우 유리했을 것이다. 매일의 삶과 유리된 예배가 아니라 삶을 긍정하게 하고 지탱하게 하는 일은 예배 가운데 일상이 연결될 때 얻어질 것이기에 상가교회도 적극적으로 착안할만한 작업이다.⁷⁴⁾

안선희가 빅터 터너의 이론을 가져와서 예배와 같은 공적인 의례의 수행이 전형적인 교정의 장치로 작동했음에 주목한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⁷⁵⁾ 예배는 어느 경우에도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작동되어서도, 욕망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서도 안된다. 교정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이 필요한데 한국의 중·소규모 교회들이 자기 성찰과 욕망 사이에 서서 방황하고 있다면 이머징교회의 신학과 설교, 예배는 자기 성찰을 가져오는 교정 행위의 시작이 될 것이다.

71) 뎀 김볼, 『하나님께서서 영광 받으시는 고귀한 예배』, 110.

72) 개럿 그린, 『하나님 상상하기: 신학과 종교적 상상력』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139.

73) 이정구, 「영성개발을 위한 종교적 시각이미지 활용방안」, 『목회와 상담』17 (2011), 257-258, 266-268.

74) 이정구는 예배가 일상이 곧 예배임을 기억(anamnesis)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정구, 「프로렙시스(prolepsis)를 향한 예배 공간의 구성」, 『한국기독교신학논총』73 (2011), 381.

75) 안선희, 『예배 이론 예배 실천』 (서울: 바이북스, 2013), 66-71.

VI. 나가는 말

개신교회가 예배당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해하면서 거룩성만을 강조한다면 그 건물은 신전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그러한 교회를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가 표방할 수는 없다. 개신교의 교회 갱신은 대형교회가 추구하는 건물을 통한 거룩성의 고양이라든지, 대규모 집회를 위한 기능적인 차원의 배려보다는 소규모의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교회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다수를 차지하는 이들 교회의 기동력이야말로 큰 부담이 없이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미덕이다.

이러한 갱신을 위해 신약에 등장하는 가정교회 모델이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가정교회는 두라-에우로포스 유적에서 발견되는 바와 같이 소규모의 공동체 중심을 지향하고 친교와 나눔 등을 핵심적인 가치로 여긴다. 음향 고고학의 성과에 따라 이런 가정교회의 지향점이 점차 획일화된 기능 중심주의적이고 교권 위주의 목회로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된다. 설교마저도 깨달음보다는 음악을 통한 감동처럼 보여주는 기능만 담당하게 될 때 예배는 생동력을 잃게 된다. 다시 현대에 이르러 고대의 신학과 실천, 예배를 회복하자고 하는 이머징교회운동의 시도에서 오늘 한국 개신교 교회의 갱신의 구체적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운동은 기독교 초기의 공동체성과 참여, 돌봄과 공감각적인 예배의 회복을 표방한다. 이는 참여가 아닌 관망에 집착해서 외형만 갖춘 형제화된 예배를 초기교회의 활력 있는 것으로 바꾸려는 시도이다. 공동체 중심의 교회 구조로 돌아가려는 이머징교회운동의 노력을 중·소규모 개신교회에 적용할 때 부족한 인력이나 자원은 치명적인 한계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보다는 오히려 공유된 비전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며 성실한 기획이 필수적이다.

주제어: 두라-에우로포스, 하나님 백성의 집, 하나님의 집, 초대교회, 작은교회, 가정교회, 이머징교회운동

원고접수일: 2015년 5월 16일

심사완료일: 2015년 6월 9일

게재확정일: 2015년 6월 15일

참고문헌

- <<크리스천 투데이>> 2013년 2월 24일자 기사. 「1년 사이 헌금 30% 감소... 교회도 '불황' 맞았다」
- <<매일경제>> 2013년 11월 14일자 기사. 「편안한 절 vs 어려운 교회」
- 개럿 그린. 『하나님 상상하기: 신학과 종교적 상상력』. 장경철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 고영수. 「한국 교회 이미지 회복을 위한 강소형 교회 세우기 Small but Strong Church Build-up」. 『Church Growth』 2014년 10월호.
- 남호. 『초대 기독교 예배』. 서울: 도서출판 KMC, 2008.
- 댄 킴벌. 『그들이 꿈꾸는 교회』. 차명호 옮김. 서울: 미션월드, 2008.
- _____. 『시대를 리드하는 교회: 새로운 세대를 위한 전통적 기독교』. 윤인숙 옮김. 서울: 이레서원, 2007.
- _____.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고귀한 예배』. 주승중 옮김. 서울: 이레서원, 2007.
- 로버트 E. 웨버. 『예배의 역사와 신학』. 정장복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 리차드 미들턴, 브라이언 왈시.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 세계관』. 김기현, 신광현 옮김. 서울: 살림, 2007.
- 박영호. 「가정교회는 교회인가?- 예배 공간과 공동체의 정체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94, 2014.
- 박정세. 「초기 기독교 성화의 기원과 토착화-제정로마시대를 중심으로」. 『신학논단』45, 2006.
- 안선희. 『예배 이론 예배 실천』. 서울: 바이북스, 2013.
- 에디 깁스, 라이언 볼저. 『이머징 교회』. 김도훈 옮김. 서울: 쿤란출판사, 2008.
- 오규훈. 『153교회』. 서울: 포이에마, 2013.
- 옥성호.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8.
- 유재원. 「이머징 교회 운동의 설교 연구」. 『장신논단』44, 2012.
- _____. 「한국형 이머징 예배의 가능성 연구」. 『장신논단』45, 2013.
- 이성찬. 「신약성서에 나타난 가정」. 『성서마당』80, 2006.
- 이정구. 「영성개발을 위한 종교적 시각이미지 활용방안」. 『목회와 상담』17, 2011.

- _____. 「프로렙시스(prolepsis)를 향한 예배 공간의 구성」. 『한국기독교신학논총』73, 2011.
- 임석재. 『서양 건축사 2: 기독교와 인간』. 서울: 북하우스, 2003.
- _____. 『서양 건축사 3: 하늘과 인간』. 서울: 북하우스, 2006.
- 정용한. 「교회 건축을 위한 로마 가옥 연구」. 『신학논단』74, 2013.
- 제임스 F. 화이트. 『기독교 예배학 입문』. 정장복, 조기연 옮김.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0.
- 제임스 화이트, 수잔 화이트. 『교회건축과 예배 공간: 신학과 건축의 만남』. 정시춘, 안덕원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 존 로덴. 『초기 그리스도교와 비잔틴 미술』. 임산 옮김. 서울: 한길아트, 2003.
- 김 벨처. 『깊이 있는 교회』. 전의우 옮김. 서울: 포이에마, 2011.
- 최영현. 「다문화 상황에서 이머징교회운동」. 『신학논단』. 76집, 2014.
- 최형목. 『한국 기독교와 권력의 길- 그 내부에서 바라보며 대안을 찾는다』. 서울: 로크미디어. 2009.
- 홍인규. 「바울과 가정교회」. 『신약연구』. 2권, 2003.
- Blue, Bradley. "Acts and the House Church," *The Book of Acts in Its Graeco-Roman Setting*. eds., David W. J. Gill and Conrad Gempf. Grand Rapids: Eerdmans, 1994.
- Boli, John. "The Economic Absorption of the Sacred." *Rethinking Materialism: Perspectives on the Spiritual Dimension of Economic Behavior*. ed. Robert Wuthnow.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 Co., 1995.
- Eliade, Mircea. *The Sacred and the Profane*. Orlando: A Harvest Book, 1987.
- Empereur, James L. and Christopher G. Kiesling. *The Liturgy That Does Justice*.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 2006.
- Gutmann, Joseph. *The Dura-Europos Synagogue: A Re-evaluation (1932-1972)*. Missoula: SBL/AAR, 1973.
- Hoffman, Douglas R. *Seeking the Sacred in Contemporary Religious Architecture*. Kent: The Kent State University Press, 2010.
- Jones, Lindsay. *The Hermeneutics of Sacred Architecture: Experience, Interpretation, Comparison, Volume 2: Hermeneutical Calisthenics: A Morphology of Ritual-Architectural Priorities*. Cambridge:

- Harvard Press, 2000.
- Kieckhefer, Richard. *Theology in stone: Church Architecture from Byzantium to Berkele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Kilde, Jeanne Halgren. *When Church became Theatre: The Transformation of Evangelical Architecture and Worship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Krautheimer, Richard. *Early Christian and Byzantine Architecture*. 4th ed.. Baltimore: Penguin Books, 1986.
- Ryu, Dae Young. "Understanding Early American Missionaries in Korea (1884-1910): Capitalist Middle Class Values and the Weber Thesis." *Archives de Sciences Sociales des Religions* 113, 2001.
- Suarez, Rafael, Juan J. Sendra, Alicia Alonso. "Acoustics, Liturgy and Architecture in the Early Christian Church. From the domus ecclesiae to the basilica." *Acta Acustica united with Acustica* 99, 2013.
- Taylor, Richard. *How to Read a Church: A Guide to Symbols and Images in Churches and Cathedrals*. Mahwah: HiddenSpring, 2005.
- Turner, Harold W. *From Temple to Meeting House: The Phenomenology and Theology of Places of Worship*. Amsterdam: Mouton Publishers, 1979.
- Turner, Victor. *The Ritual Process: Structure and Anti-Structure*. Ithaca: Cornell Paperbacks, 1977.
- White, James F. *Christian Worship in North America: A Retrospective, 1955-1995*.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1997.
- _____. *Documents of Christian Worship: Descriptive and Interpretive Source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 White, Susan J. *The Spirit of Worship: The Liturgical Tradition*. Maryknoll: Orbis books, 1999.

Abstract

A Study on Worship and Space for a Small Protestant Church in the Case of Dura-Europos as Early Christian Period and Emerging Worship

Young Hyun Choi(Hanil University)

The church growth movement and the megachurch mentality have helped Korean Protestant churches grow in numbers phenomenally. But these consumer driven churches have lost sight of original church purposes. The small Protestant churches, pursuing growth blindly rather than maturely need to renew themselves, with an alternate theology for worship and the differences between church buildings.

The emerging church movement itself can be an alternate type of churches. It is a faith transformation movement that challenges many modern trends of prosperity in theology and its practices. This movement can appeal to small churches which tend to reconsider their theological and issues with church practices by proposing back to the early Christian church worship and life.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common characteristics, first being it between the early Christian church and the emerging church movement group. Both seek an approach to being a church by going through to renounce the hierarchical system, making the church transitioning from the center to the margin, a moving community that goes from a community of control to a community of witness, and maintain institution to community.

Acoustic archaeology shows that the house-like church, Dura-Europos was more suitable for meeting and preaching than larger

church buildings like the basilicas. The acoustic study demonstrates that these house-like churches were not suited to the needs of the new stage of Christianity.

It is suggested that the Korean small Protestant churches need to adopt the theology of the emerging church movement to find their own ways to recover the early churches' theology and practice for communal life.

Key Words: Dura-Europos, domus ecclesiae, domus dei, the early Christian Church, small churches, house church, Emerging church movement